

언니가 필요해요 증간
로자리오가 필요해요 (Winter 2009)

백합연구소 도쿄지부 엮음

ANC Creative

발행일 2009.2.15

발행처 백합연구소 도쿄지부

발행인 R.Katsura

[해외] 백합 은리, LoveFes 1회 참가기

글 로사 카츠라 katsura@yuriinst.org (백합연구소장)

백합 은리전, LoveFes

백합(百合)은 이 곳 일본에서조차 마이너 취급을 받는 장르입니다. 오히려 BL(Boys Love)쪽이 더 대중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애니메이트(Animate)나 토라노아나(とらのあな), 메론북스(MelonBooks) 등 각종 전문점의 여성향(女性向) 코너를 돌아다녀 보면 이런 생각이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여성향 코너에 놓여 있는 작품들을 보아도, BL 관련 소설이나 만화는 풍부하지만 여성향으로 분류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 백합 관련 작품은 오히려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현상은 동인지 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각종 동인지 즉매회를 돌아다녀 보아도 백합 관련 회지를 내는 서클들을 찾기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코믹마켓(ComicMarket)¹⁾ 정도의 대형 이벤트라면 몰라도, 선샤인 크리에이션(Sunshine Creation)²⁾, 혹은 코미티아(Comitia)³⁾ 등 비교적 작은(?) 규모의 동인지 즉매회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 5월경에 열린 코미티아 84에서는 ‘백합부(百合部)’라는 이름 아래, 약 40개 정도의 서클들이 한 데 모여 백합 회지를 판매하는 작은 이벤트를 벌인 바 있지만 이는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합 동인지를 입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백합 회지를 내는 서클들을 부지런히 체크해 두었다가, 각종 즉매회에 해당 서클이 출전할 때마다 달려가서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혹은 주말이나 휴일마다 소규모로 열리는 동인지 판매 이벤트인 ‘은리전(Only展)’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런 은리전의 주제는 방영된 지 10년이 지난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서, 네코미미나 메이드 등 마이너한 취향까지 실로 다양합니다. 동인지를 주로 취급하는 전문 서점인 토라노아나, 혹은 메론북스에서는 이런 은리전의 광고지를 매우 쉽게 입수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지난 2009년 2월 1일, 도쿄 이타바시구에서 51서클 규모로 열린 백합 은리전인 LoveFes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이쿄센(埼京線)을 타고 이타바시(板橋)로

LoveFes가 열린 ‘하이 라이프 플라자 이타바시(ハイライフプラザいたばし)’는, JR

- 1) 도쿄의 인공섬, 오다이바(お台場)에서 매년 여름과 겨울, 두 번에 걸쳐서 열리는 지구상 최대의 동인지 판매 행사. 참가 서클 35,000개, 참가 인원 50만 명 이상을 기록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크로팬(www.acrofan.com)’에서 필자의 코믹마켓 73~코믹마켓 75 관련 기고 기사를 참조할 것.
- 2) 이케부쿠로역 동쪽에 위치한 복합 건물, 선샤인 시티 60 (Sunshine City 60)에서 1년에 네 번 개최되는 동인지 즉매 행사. ‘책임 속의 자유’를 추구하며, 거대한 규모의 코믹마켓과는 달리 아기자기한 재미를 제공한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아크로팬’에서 필자의 기사, [특집] 선샤인 크리에이션 40 (SC40) 탐방기를 참조할 것.
- 3) 오다이바의 빅사이트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는 코믹마켓과 같지만, 패러디가 아닌 순수 창작 동인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코믹마켓과는 구별되는 행사이다.

이타바시(板橋)역의 니시구치(西口)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에 있습니다. 도쿄도 이타바시구(東京都板橋区)에서 운영하는 이 시설은 원래 지역 기업의 홍보를 위한 전시장입니다.

한 번 출발하려면 시간은 물론이고 차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오다이바(お台場)의 빅사이트와 달리, 필자가 자주 오가는 이케부쿠로(池袋)에서 열차로 한 역 정도 떨어진 곳이라 오가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JR 이케부쿠로역에서 JR 이타바시역으로 이동하는 데는 사이타마(埼玉) 지역과 도쿄를 연결하는 사이쿄선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필자는 LoveFes가 시작되는 14시 30분 경에 JR 이타바시 역에 도착했지만... 하필이면 지도를 챙겨온다는 것을 잊은 탓에 주변을 상당히 헤매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휴대전화를 꺼내서 검색을 해 보니, 역을 나와서 조금 앞에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니다. 이러다가 제2회 백합제때도 헤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건물로 향했습니다.

LoveFes 행사는 하이 라이프 플라자 이타바시의 2층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즉매회가 그렇듯이, LoveFes 역시 현장에서 판매되는 카탈로그를 구매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날 판매된 카탈로그는 B5 판형에 24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가격은 500엔이었습니다.

물론 행사 주최 측에서도 사전에 웹 사이트를 통해서 참가하는 서클이나 교통편 등의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카탈로그가 없어도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카탈로그를 판매하는 것은 행사 장소 임대료를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필자는 카탈로그를 구입하고 나서 14시 45분이 되어서야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시간과 함께 구간을 발굴하는 재미도 함께

행사장은 제1회 백합제가 열린 도봉구민회관보다는 조금 더 넓은 정도였고, 총 51여 개의 서클을 ‘소(少)·녀(女)·연(恋)·애(愛)’ 로 나누어서 배치하고 있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입구 한편에는 후반 행사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타바시 역은 이케부쿠로 역에서 가깝고, 이케부쿠로 역 인근에는 ‘오토메 로드(乙女ロード)’⁴⁾가 있기 때문에, 여성 참가자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것이 당초 필자의 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사장에 입장해 보니 남성 참가자들이 예상 외로 많았습니다. 남성 참가자들의 연령층도 2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코믹마켓 등에서 백합 관련 동인지가 가장 많이 출품되는 2일차에서 남성들을 찾아보기 힘든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전체적으로 부스를 돌아보면서 발견한 사실은, 책값이 상당히 저렴하다⁵⁾는 사실

4) 이케부쿠로역 동쪽에 위치한 ‘또 하나의 성지’. 선사인 크리에이션이 개최되는 선사인 시티 60 (Sunshine City 60) 반대편에 위치한 거리로, 여성향 동인지나 드라마 CD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점포들이 몰려 있다. 자세한 해설은 필자가 아크로앤에 기고한 기사, ‘이케부쿠로 ‘오토메 로드’ 관광가이드’를 참고하기 바람.

5) 물론 본문 안의 가격을 원화로 환산하면 우리나라의 각종 동인지 즉매회에서 판매되는 동인지의 평균 가격을 훨씬 뛰어 넘는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며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저렴한 셈이다. 약 소리 나는 환율 때문에 살 것도 못 사는 분들이 많아 암울한 현실이지만,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었습니다. 코믹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일반적인 동인지의 가격이 500엔인데 비해, 이날 LoveFes에서 판매된 동인지는 신간이라 해도 대부분 400엔, 구간이라면 350엔 정도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서클이든, 즉매회에 들고 나오는 구간이라면 재고 정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가격이라면 그야말로 ‘출혈 대서비스’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 하나, 신간보다는 구간을 들고 나온 서클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행사가 개최된 시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가장 먼저, 당시 선샤인 크리에이션 42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⁶⁾을 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LoveFes 뿐만 아니라 선샤인 크리에이션 42에도 참가하는 서클이라면 두 행사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가혹한(?) 선택을 강요당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LoveFes에는 구간을 들고 나오고, 선샤인 크리에이션 42에는 신간을 들고 나오겠다는 서클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두 행사 모두 신간을 내고 싶다면 어느 한 쪽의 행사에 집중해야 하므로, LoveFes에는 손이 많이 가고 인쇄 마감일이 타이트한 오프셋 인쇄본보다는 카피본(Copy本)을 내야 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신간을 인쇄본으로 낸 서클도 상당히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물러날 수는 없는 노릇이라, 결국 필자는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マリア様がみてる)>, 이하 ‘마리미테’를 다루는 서클들을 돌면서 구간을 쓸어 담았습니다.

물론 코믹마켓 등에서도 마리미테 관련 동인지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빅사이트에서 자신이 원하는 동인지를 찾으려 돌아다니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코믹마켓이 종료된 다음에 토라노아나, 메론복스의 웹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현장에서 놓친 ‘개념작’들을 발견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이런 소규모 온라인에서 팬층은 서클을 발견한 다음, 코믹마켓이나 선샤인 크리에이션 등의 대규모 이벤트가 열릴 때마다 그 서클들이 참여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발굴 방법 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창작소녀연애’로 참가한 서클들이 많아

이제부터는 이 LoveFes에 참가한 서클들의 장르별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는 LoveFes 카탈로그에 적혀 있는 참가 서클들의 장르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각 서클들의 당일 행사 참가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총 51개의 서클 중, 창작 장르인 ‘창작소녀연애(創作少女恋愛)’로 신청한 서클들은 24개로 약 47.1%에 달합니다. 이외에 ‘마리미테’로 신청한 서클들은 7개로, 14%입니다. 이외에는 솔페쥬(ソルフェージュ)나 동방 프로젝트(東方Project) 등 각종 게임을 주제로 한 서클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 선샤인 크리에이션 42는 지난 2009년 2월 8일(일요일)에 개최되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구분은 사실 그다지 의미가 없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마리미테’로 참가 신청을 한 서클이라고 해도 창작 회지를 들고 나오기도 하며, ‘창작소녀연애’로 신청한 서클이라고 해도 기존 작품을 패러디한 구간을 들고 나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의 동인지 즉매회라면 서클들의 장르가 세밀하게 나누어지지만, 이런 소규모 온라인이라면 장르 구분이 상당히 애매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카탈로그나 공식 웹사이트 상에 공개된 정보만 믿고 있다는 눈앞에서 회지를 놓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도 소규모 온라인의 특징입니다.

여러 가지 특이한 점들, 그리고 아쉬웠던 점들

이제부터는 이 LoveFes를 둘러보면서 느낀 점이나 특이한 점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인지 즉매회에서는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상식을 가진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최대 규모의 동인지 즉매회인 코믹마켓의 영향이 크지만, 당장 선샤인 크리에이션만 해도 코스프레가 금지됩니다⁷⁾. 이는 코믹마켓이 열리는 장소가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전시용 건물인 빅사이트인데 비해, 선샤인 크리에이션이 열리는 선샤인 시티 지역에는 엄연히 주거 장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비용이나 접근성 등 여러 문제 때문에 주거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열릴 수밖에 없는 각종 소규모 온라인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LoveFes에서는 제한적이거나 코스프레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단, 코스프레 의상이 ‘소녀연애’와 관련이 있는 작품 안에 나와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고, 여성 참가자들만 코스프레가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행사장 안에서 리리안 여학원의 동복을 입은 여성 참가자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쉬운 점을 하나 들자면, 아예 행사장에 등장하지 않은 서클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LoveFes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2,500엔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한데, ‘오늘은 참가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만 붙어 있고 행사장에 등장하지 않은 서클들도 종종 보였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로 신간을 낼 수 없는 서클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참가하지 못했던 서클에게 자리를 양도하거나, 혹은 직접 나와서 신간을 기다리는 참가자들을 만나는 성의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2009년 2월 1일, 도쿄 이타바시구에서 열린 백합 온라인인 LoveFes를 소개했습니다. 지면이 한정된 탓에 많은 것을 소개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웃나라의 백합 온라인에 대해 궁금했던 여러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글을 맺습니다.

7) 실제로 선샤인 크리에이션의 카탈로그에서는 코스프레 뿐만 아니라, ‘코스프레와 혼동할 수 있는 복장(누구든지 보고 금방 알아챌 수 있는 복장)’도 금지하고 있다.

[분석] <비밀의 봉오리> 1권의 수상쩍은 관계

글 로사 카츠라 katsura@yuriinst.org (백합연구소장)

○ 대상 작품 :

1. 만화 단행본

<ないしょのつぼみ> 1 (ISBN 978-4-09-137079-9)

만화 야부우치 유우(やぶうち優) / 출판사 쇼가쿠칸(小学館) / 2005년

<비밀의 봉오리> 1 (ISBN 978-89-252-1657-7)

만화 야부우치 유우, 번역 김지연 / 출판사 대원씨아이 / 2007년

○ 개요 :

이 글에서는 <비밀의 봉오리> 1권의 등장인물 사이에 나타나는 수상쩍은 관계를 다룬다.

○ 스포일러 여부 :

<비밀의 봉오리>는 지난 2007년 하반기에 국내에 번역되어 정식 발매된 작품이나, 작품의 특성상 구매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전반적인 내용을 최대한 개략적으로 소개하되, 중요한 부분의 언급은 피하도록 하였다.

1. <비밀의 봉오리>란?

<비밀의 봉오리(ないしょのつぼみ)>는, 지난 2004년부터 쇼가쿠칸의 아동용 잡지인 <초등 5년생(小学五年生)¹⁾>에 연재되고 있는 성교육 만화입니다. 주 독자층은 연재 잡지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 5학년, 특히 여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 때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으로 찾아오는 2차 성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임신이나 출산에 관한 이야기를 그 나이 또래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미있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이 <비밀의 봉오리>는, 일본의 각 급 학교에서 신학기가 시작되는 4월²⁾에 맞추어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하지만 등장하는 주인공인 여자아이의 이름이 ‘つぼみ(츠보미)’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제1기의 연재가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제5기가 잡지상에 연재중입니다.

작품의 제목인 <비밀의 봉오리>에서, ‘봉오리’로 번역되는 ‘つぼみ(츠보미)’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츠보미’는 사전적인 의미인 ‘(꽃)봉오리’ 라

1)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를 ‘소학교(小学校)’라고 쓰고, ‘쇼각코’라고 읽는다. 하지만 번역 과정에서 이를 정확히 옮길 수 있는 단어를 찾지 못해 이와 같이 옮겼다.

2)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신학기가 4월에 시작된다. “그렇다면 겨울방학이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3월 말까지인가?” 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다르다. 우리나라라면 방학중이어야 할 1월 말에도 수업이나 시험이 있기 마련이다(대학교 기준). 따라서 여름방학·겨울방학이 짧아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어느 제도나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기 마련이다.

는 뜻임과 동시에, 주인공 여자아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즉, ‘아직 피어나지 못한(자라나지 못한) 츠보미’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2. 1권에서 보이는 기묘한 관계?!

그렇다면 이 <비밀의 봉오리> 1권에서 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필자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수면 시간을 쪼개어 원고를 쓰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1권에 백함으로 볼 수 있는 기묘한 관계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기묘한 관계라니?” 이런 의문을 가질 독자 분들을 위해서 <비밀의 봉오리> 1권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권의 주인공인 타치바나 츠보미(立花つぼみ)는 올 봄에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신학기를 앞둔 어느 날, 츠보미는 엄마에게서 ‘츠보미의 동생이 태어난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여동생인지 남동생인지 알 수는 없지만, 몇 달만 기다리면 ‘언니’)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기뻐하는 츠보미.

한편 개학 후 맞은 신학기의 첫날, 츠보미는 친한 친구인 카토 레아(加藤麗愛, 애칭은 麗愛び[레아삐])와 야마부키 야에(山吹八重, 애칭은 八重ちゃん[야에짱])를 만나서 동생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레아는 츠보미에게 “츠보미의 아빠와 엄마가 ‘야한 짓’을 해서 동생이 태어나게 된 것이니 그런 이야기는 남에게 안 하는 게 좋다”고 충고합니다. 츠보미는 레아의 말을 듣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보니 츠보미의 엄마도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이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츠보미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으니….

과연 동생이 태어난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털어놔도 안 될 만큼 부끄러운 일일까요? 레아의 말 때문에 놀이터에서 혼자 고민하는 츠보미. 이런 츠보미에게 다가와서 “무슨 일이니?”라고 묻는 아이가 있었으니, 새 학기부터 갑자기 전학을 온 엔도 사야(遠藤紗耶)입니다. 사야는 츠보미의 고민을 듣고서는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이라고 한 것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츠보미와 사야는 친구가 됩니다.

물론 이 만화가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만화인 만큼, 여러 가지 이슈(신체검사나 초경, 이성관계 등)를 주인공인 츠보미와 친구인 레아, 야에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사야는 작가를 대신해, 츠보미(독자)에게 여러가지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한편 사야에게는 몇 가지 수상쩍은 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체검사를 할 때 체중계에 체중이 안 뜨고 ‘Error’라고 표시된다든지, 사야네 집에 놀러가고 싶다는 츠보미의 말에 “사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거절하기도 하고, 츠보미의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니 갑자기 학교에 결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츠보미의 동생이 태어난 날, 사야는 갑자기 사라지고 맙니다.

3) 우리말에서는 손윗누이를 가리키는 말이 ‘언니(여성)’, ‘누나(남성)’로 나뉘어 있다. 반면 일본어에서는 ‘お姉さま’ 혹은 ‘お姉さん’, ‘お姉ちゃん’으로 남성, 여성 모두 동일하다. 정식 번역판에서는 ‘언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나중에 밝혀지므로 원작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외에 등장하는 여러 내용은 스포일러에 해당하므로 굳이 지면상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주인공인 타치바나 츠보미와 난데없이 등장한(?) 엔도 사야의 관계가 지극히 수상쩍습니다.

일단 사야는 ‘굉장히 어른스럽고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이미지’인데다, 당연한 이야기 일지는 모르지만 츠보미보다 아는 것도 많습니다. 더구나 레아나 야에와 함께 시부야(渋谷)에 옷을 사러 갔다가 길을 잃어서 험한 일을 당할 뻔 했을 때, 츠보미를 구해 준 것도 사야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츠보미는 사야에게 상당히 의지를 하게 됩니다.

한편 작품 안에서 사야가 츠보미에게 보이는 애정(?)도 만만찮습니다.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건 츠보미☆” 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 사라질 때에도 “정말 좋아해”라는 대사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 또래에 흔히 있을법한 우정이라고는 보기 힘들습니다.

사실 이 작품을 두어 번 정도 읽어보면, 사야가 왜 츠보미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작품 곳곳에서 원작자가 ‘플래그’를 세워 놨기 때문이죠. 아마 이미 원작을 읽은 분이나, 눈치가 있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는 짐작하셨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백합의 장르로 구분을 하자면, 사야와 츠보미의 관계는 “姉妹百合⁴⁾”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우리나라에는 왜 없을까?”

한편 작품 연구를 위해 <비밀의 봉오리>를 구해서 읽다가 말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만화가 없을까?”가 바로 그것입니다. <비밀의 봉오리>는 서두에서도 밝혀두었듯이,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만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독자들에게도 의외로 잘 팔려서 화제가 되기도 한 작품입니다. 지난 2008년에는 유명 성우들이 총출동한 OVA가 DVD로 출시되어서 나름대로 판매고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성교육 만화라는 독특한 장르 치고는 상당히 히트한 셈입니다.

물론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성에 대해 관대한 면도 있겠지만, 딱딱한 이론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만화를 통해 필요한 지식들을 알려주는 이런 작품이 우리나라에도 한 권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이 <비밀의 봉오리>는 현재 대원씨아이를 통해 제 4권까지 출판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제 1권의 앞 이야기에 해당하는 제 0권이 출판되지 않았지만, 필자가 일본에서 구해 읽어본 결과⁵⁾ 읽지 않아도 내용을 이해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백합이나 아니냐를 떠나서, 한 번쯤은 재미있게 읽어볼 만한 내용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4) 스포일러에 해당하므로 일부러 한글이 아닌 한자로 적어 두었다. 일본어나 한자를 아시는 분이라면 그 의미를 금방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자 독음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원작을 읽고 나서 옥편을 뒤져 보실 것을 권장한다.

5) 이케부쿠로(池袋)에 있는 애니메이트(Animate) 본점에 있는 2층 ‘여성향 코믹스’ 매장에서 0권을 구입했는데, 여성 오타쿠(이른바 후쵸시)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